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UCI]I804:24011-200000265634

2016년 8월

교육학석사(미술교육)학위논문

감성지능 향상을 위한 오감활용 미술 교육 프로그램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박 나 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감성지능 향상을 위한 오감활용 미술 교육 프로그램 연구

Study on Five Senses Art Education for Improvement of Emotional Intelligence

2016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박 나 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감성지능 향상을 위한 오감활용 미술 교육 프로그램 연구

지도교수 조 윤 성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미술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박 나 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박나은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진원장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상호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조윤성 인

2016년 6월

조 선 대 학 교 교 육 대 학 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ABSTRACT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

Ⅱ. 감성지능의 이해와 교육적 가치 ····· 4
1. 감성지능과 미술교육 ····· 4
1) 감성지능의 개념 ····· 4
2) 감성지능과 미술교육의 관계 ····· 9
(1) 감성과 미술교육 ····· 9
(2) 감성지능을 위한 미술교육의 역할 ····· 12
(3) 감성지능의 교육적 가치 ····· 15

Ⅲ. 오감활용과 미술교육 ····· 17
1. 미술교육에서의 오감활용 ····· 17
1) 오감의 이해 ····· 17
2) 오감의 발달 ····· 20
3) 오감과 미술표현 ····· 25
4) 미술을 통한 오감활용의 교육적 의의 ····· 27
2. 오감활용 미술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 ····· 32
1) 현행 미술 교육과정을 통한 오감활용 미술교육 ····· 32
2) 현행 오감활용 미술교육의 문제점 ····· 3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오감활용 미술교육의 지도방향 ····· 37
1) 학습자의 특성 ····· 37
(1) 인지적 발달 ····· 37
(2) 미적 표현의 발달 ····· 40
2) 지도의 방향 ····· 44

Ⅳ. 감성지능 향상을 위한 오감활용 미술 프로그램 ····· 46
1. 프로그램 구성의도 ····· 46
2. 프로그램의 구성 ····· 47
3. 프로그램의 진행 ····· 48
4. 기대 효과 ····· 54
5. 수업지도안 ····· 59

Ⅴ. 결론 ····· 65
참고문헌 ····· 6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목 차

<표 1> 오감 탐색 용어 ····· 22
<표 2> '우리의 숲' 만들기 수업지도안 ····· 56
<표 3> 오감을 활용한 미술 수업지도안 1 ····· 60
<표 4> 오감을 활용한 미술 수업지도안 2 ····· 62
<표 5> 오감을 활용한 미술 수업지도안 3 ····· 6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 림 목 차

[그림 1] 프로그램 진행과정 요약 ····· 48
[그림 2] 약수터 오감체험 과정 예시 ····· 50
[그림 3] 오감 생각그물 만들기 예시 ····· 51
[그림 4] 운동장 오감 생각그물 예시 ····· 52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Study on Value and Significance of Five-sences Art Education to Improve Emotional Intelligence

park, na eun
Adivisor : Prof. Cho, Yoon Sung, ph.D.
Department of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oday, children living in this society that focuses only on one's academic background are struggling to survive an adolescent period in the midst of the standardized cramming system of education and overheated competition for university entrance, and that consequently leads to the children's even severer mental stress. As for the adolescents' mental stress, since it can develop into wrong events such as not only deviation and/or social crimes which the adolescents would use as ways to express their desires but also mental diseases, it is urgent to prepare a method that would approach such problems from educational angles. Children experience physical, emotional and social developments in the adolescent period and therefore, if we want to help them have right balanced personalities, emotional education to teach not the brain but the heart which is, in other words, sensibility education, should be valued, and art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effective method to carry out such education than other subjects are.

Based on what it had learned from the review on relevant references, this study conducted theoretical discussion on value and educational significance of this particular way to help improvement of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during their adolescent period which is the five-sense art education and then offered an art program that would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use five senses to develop the adolescents' emotional intelligence.

The program presented by the study encourages children to express their five-sense elements, which they have experienced in surrounding nature outside classrooms, in various ways and eventually contributes both to the improvemen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adolescents' egos, and expected effects of the program are summarized as follows.

1. In the program, children actively work with their five senses.
2. The program effectively improves and cultivates emotional intelligence of children in their adolescent period.
3. Children willingly join the program as active participants of a sense of independence.
4. As a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to experience nature, the program carries out art education even in everyday surroundings but not always in classrooms or artificial places.
5. The program can be easily integrated with other subjects.

As one of the ways to improve emotional intelligence, the five-sense art program pursues educational value of use of five senses and as children experience surrounding 'nature' with their five senses and express them only freely, they can improve and cultivate emotional intelligence. As long as we believe that our ultimate goal of education is the establishment of human's right personality and positive ego but not this development of intelligence quotient and left brain and that art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emotional intelligenc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ultivation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five-sense art education to achieve the emotional intelligence development should be considered the true educational method.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이 하나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입시경쟁에서 오는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이혼과 한 부모 가족의 증가,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의 기회 감소로 인해 만들어진 정서적 스트레스가 우울증 불안증 부적응 등의 증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정서적 스트레스는 자칫 학교폭력이나 사회 범죄로까지 이어 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적응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감성지능에 대한 연구이다.[1)]

감성지능은 선천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후천적으로 계발 될 수 있으며 교육을 통하여 계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날 교사와 부모가 길러주어야 할 능력이 바로 감성지능이다.[2)]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서적·도덕적·사회적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올바르고 균형이 잡힌 인격 형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머리가 아닌 마음을 가르치는 감성교육이 중시되어야한다. 감성지능은 다른 교육방법이나 생활 속에서 길러지기도 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미술교육이다. 미술은 감정, 정서의 문제와 직결되며 인간 내면의 자유로운 표출을 지향하기 때문이다.[3)]

이에 본 연구는 중등 미술교육에서 감성지능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감

1) 이정란, “오감을 활용한 미술 감성교육이 EQ에 미치는 영향”,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27.
2) 박아림, “감성지능 향상을 위한 미술 교육 지도방안 연구: 초등학교 중학교 중심으로”,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32.
3) 류승연, “감성교육을 위한 중등미술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1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활용 미술교육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술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신체감각인 오감을 활용하는 것은 보다 감각적인 경험의 다양성을 길러 준다. 이렇게 자신의 감각기관으로 익힌 경험들을 자신만의 미적 감각을 살려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간의 심미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며 스스로 정서적 감정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본 연구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방안은 청소년기의 감성지능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이며 곧 감성교육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오감의 이해에서 출발하고자 하는데 먼저 감성지능이 무엇이며, 미술교육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오감활용을 이용한 미술교육의 현황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를 통한 활동지도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서론은 제Ⅰ장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기술하였다. 본론은 제 Ⅱ장에서 Ⅳ장까지로 구성되는데 제 Ⅱ장에서는 감성지능의 이해와 교육적 가치 탐구를 위해 감성지능의 개념, 그리고 감성지능과 미술교육과의 관계를 통해 미술교육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 Ⅲ장에서는 오감을 이해하여 미술을 통한 오감활용의 가치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오감을 활용한 미술교육을 분석하였다. 제 Ⅳ장에서는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등학생의 감성지능 향상을 위한 오감활용 미술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Ⅴ장 결론은 서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본론에서 수행한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였다.

연구방법은 우선 감성지능과 오감활용 미술 교육에 관련한 단행본, 인터넷 자료 등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오감을 활용한 미술교육이 학생들에게 오감의 감각기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을 최대한 활용하여 표현하고 경험의 다양성과 감성지능을 향상시켜 정서적 안정과 창의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더 나아가 교우 간의 심미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져 자기이해와 더불어 타인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정서적 교육, 즉 감성교육에 초점을 두고 타인에 대한 존중, 인간의 안정과 인격형성을 위해 그에 따른 미술교육을 보완해야 한다. 본 논문은 발표된 선행 논문과 자료를 통해 단순히 이론적 차원에 머물러 있었던 감성지능의 개념을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도 방법을 찾아 볼 것이며, 아울러 감성지능의 향상을 위한 오감활용 미술 교육의 지도 방향과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시도한 연구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Ⅱ. 감성지능의 이해와 교육적 가치

1. 감성지능과 미술교육

1) 감성지능의 개념

그 어느 때보다도 감성을 중요시하고 있는 지금, 감성지능이라는 말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감성지능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만족할만한 정의를 답하기엔 쉽지 않을 것이다. 감성지능이라는 개념 이해를 위해서는 우선 지능(intelligence)의 개념과 정서 또는 감성(emotion)의 개념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지능(intelligence)은 정신기능의 인지적 측면이다. 지능은 여러 심리학자들에 의해 학술적인 면에서 많이 사용이 되며 연구 또한 계속 되고 있지만 지능의 특성상 정의가 쉽게 구해지지 않아 학자들에 따라 그 정의를 달리하여 사용하고 있다.[4] 이러한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지능은 학습, 기억, 추론, 판단 또는 적응을 포함하는 인지적인 영역의 효율적인 조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능지수를 나타내는 IQ(Intelligence Quotient)[5]는 지능 발달 정도를 나타내는 검사 결과로 나타내는 수치를 말한다.

이에 비해 감성(emotion)은 정신기능의 정의적인 측면을 말한다. 인간이 가지는 다섯 가지 감각 즉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등 오감으로 느끼는 것을 말한다. 심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이 논의해온 감성의 개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

---

4) 김희승, “중등교육에서 감성지능 발달을 위한 미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p.5.

5) I.Q (Intelligence quotient) 지능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의 깊이를 일컫는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각적, 인지적, 언어적 능력과 관련된 비교적 영구적이고 안정성 있는 개인의 속성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감성이 정신활동을 방해하므로 감성을 통제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고대 희랍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은 감정을 이성 아래에 두었으며, 정서와 감정의 영향에서 벗어나도록 사람들에게 권고하였다. 둘째, 감성은 인지활동과 후속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체계적인 반응이라는 관점이다.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의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감각을 매개로 하여 받아들이는 능력으로 정의상 감정 또는 느낌'으로 즉 의식적으로 느껴진 경험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의 소산이라 간주한다.[6)]

감성지능은 1990년에 피터 셀로비(peter salovey)[7)]와 그의 동료인 뉴햄프셔 대학의 존 메이어(John Mayor)[8)]의 학술논문 발표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이들이 말하는 감성지능이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인식하여 표현 또는 평가할 줄 아는 능력,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정하고 적절하게 활용하여 자신의 삶을 효과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이다. 또한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오직 IQ 만으로만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IQ를 측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경험했거나 학습된 지적 능력수준을 진단한 것일 뿐 나중에 발휘하게 될 지적 잠재력을 보여주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IQ를 평가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은 측정·평가할 수 있지만 상황을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측정과는 거리가 멀다. 감성지능은 주로 인지적 측면만 강조했던 IQ 의 단점을 보완하고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했던 인간의 감성적인 측면의 능력을 개념화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다. 감성지능의 등장은 지성만을 강조하던 사고에서 벗어나서 감정이 인간의 비합리적인 결점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과 논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감성지능이 등장할 수

6) 안은미, "감성과 감각교육을 적용한 미술교육",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6.
7) 피터 셀로비(peter salovey)- 현 미국 예일대학교 심리학 교수. '정서지능(EQ)'를 처음으로 제시하였으며 심리학적 시각에서 인간의 지능이 지나치게 편협하게 정의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8) 존 메이어(John Mayor)- 피터 셀로비와 함께 인간 내적인 지능 혹은 인간 상호적인 지능이라는 용어 대신에 좀 더 명확한 용어인 감성지능이라는 말을 만든 'EQ(감성지능)이론'의 창시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밖에 없던 이유는 감정과 사고를 통합하려는 사회의 흐름 때문이다. 그 후 감성지능의 의미가 부각된 것은 1995년에 뉴욕타임스의 칼럼 작가이자 하버드대 심리학 박사 다니엘 골먼(Daniel Goldman)이 감성지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부터이다.[9] 다니엘 골먼은 인간의 사고능력인 기억력, 추리력, 언어능력, 수리력, 공간지각력 등의 유전적인 IQ의 개념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기통제, 열정, 인내력 그리고 자신에 대한 동기부여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감성지능을 정의하고 상용화하였다. 골먼은 머리의 힘인 지능지수로만 삶을 추구하는 것은 편협한 것이고 인생에서의 성공을 보장하는 핵심적 능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가슴이 머리를 지배하는 감성지능의 시대가 도래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책에서 골먼은 감성지능을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 자신을 격려하는 능력,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라는 5가지 개념을 포괄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10] 그는 감성을 느낌, 그리고 느낌의 독특한 사고 심리적이고 생물학적인 상태 행동 경향으로 정의한다. 이는 감성과 이성을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보며 감성이 인지활동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촉진시키는 것으로 감성적 사고가 인지적 사고와 지능을 촉진시키는 관점이다. 감성반응의 적응을 돕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풍부한 개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골먼은 연구를 통하여 기업 세계에서 높은 지위로 올라갈수록 감성지능이 리더십의 능력을 결정짓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주장하였다.[11] 일정 수준 도달한 간부들의 경우 앞으로 점점 더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며 감성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골먼은 또한 2006년, EQ에 사회적 교류와 관련된 지능지수로 '사회지능(SQ:Social Intelligence Quotient)'을 추가하는데 SQ는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동화와 조화로움을 중점으로 한 '사회적 두뇌' 에 해당한다.

---

9) Daniel Goldman.「감성지능」비전코리아, 1995, p.67.
10) 탄춘홍·전왕록.「하버드 천재들의 감성수업」,리오북스,2016, p.86.
11) 다니엘 골먼.「감성의 리더십」, 청림출판사. 2003, p.6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IQ보다 SQ[12]가 중요하게 된다. 일정 수준까지 도달한 간부들의 경우 지적 능력 면에선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리더로서 부하들의 감정을 읽고 호흡할 줄 아는 사회 지능이 중요하게 된다.

직장에서 새로 채용을 하거나 승진 시킬 때 역시 SQ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SQ와 EQ로 탁월한 사람을 찾는 회사가 많아졌다고 한다.[13] 이는 이메일 등을 통해 서로 원거리에서 협업하는 일이 많아지고, 직장 동료와 고객들의 배경이 과거에 비해 더 다양해지고 있어 이러한 감정이입과 협동 능력을 가리키는 SQ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골먼은 사회지능을 사회적 자각과 사회적 능력으로 나누어 재평가한다. 사회적 자각은 타인의 심리상태를 인식하여 느끼는 것에서부터 그 상대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사회적 상황에 '참여하는' 것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스펙트럼을 말하며, 사회적 능력은 사회적 자각을 바탕으로 하여 효과적이고 원활한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더 넓은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14]

스턴버그(Abstract Sternberg)[15]는 감성지능에 해당되는 용어로 '성공지능(successful intelliigence)' 이라는 개념을 제안함으로써 감성지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스턴버그는 교사들의 일상적인 경험으로부터 성공지능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며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중 공부는 잘했지만 사회생활에서는 고전하는 경우와, 반대로 학교 공부는 잘 못했지만 사회에서는 성공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학교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며, 이것은 곧 학교 공부와는 무관한 인간의 어떠한 능력이 있음을 말한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그는 에드워드 손다이크(Edward Thorndike)[16]의 결론을 지지하였던 것이다.

---

12) SQ(Social Intelligence) : 타인과의 교감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제하는 두뇌의 조절능력
13) 유신모. 「SQ는 성공의 어머니」,경향신문, 2006.09.04.
14) 유신모. ibid.,p.8
15) 스턴버그는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도전에 어떻게 반응하고 실생활의 다양한 요구에 어떻게 적응하는가를 결정하는 창조력, 실용적 지능을 분석적 지능과 동등한 위치에 놓았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IQ 검사에 대한 선풍적인 관심이 일어난 1920년 직후에 손다이크는 「하퍼스」라는 월간지에서 '사회지능' 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며 "남자와 여자를 이해하고 다루는 기술" 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IQ 측정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을 창안한 심리학자 데이비드 웩슬러(David Wechsler)는 1950년대 말 사회지능을 "일반적인 지능을 사회적 상황에 적용한 것" 일 뿐이라고 하며 별 의미를 두지 않았다.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17]는 인간의 지능을 조금 더 폭 넓게 보기를 주장하며 IQ, EQ와 같은 단순한 지적능력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지능으로 구성되어 상호협력을 하고 있다고 본다. 가드너는 대인기능, 개인 내 지능 등의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교육이 인간을 개발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기여는 자신이 재능이 있고 만족해야 하며, 능력을 갖춘 영역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8] 학생들을 서열 매기기보다는 그들의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여 이를 발전시키는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하며 성공에 이르는 길은 수 없이 많이 있고, 당신이 그 길에 이르도록 도울 수 있는 많은 다른 능력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감성지능이라는 패러다임은 머리와 가슴이 균형을 이룬 상태를 지향한다. 감성지능에 대한 중요한 패러다임이라고 하지만 인간의 능력에 대한 중요성의 부각이 '새로운 패러다임' 이라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연구의 역사를 살펴보면 영향력이 있는 지능연구자들과 성공적인 삶에 대한 감성지능의 중요성을 인정해 왔다.

감성지능은 자신 및 타인의 감성을 인식하고 읽어내어 원만한 사회 · 대인관계를 할 수 있는 조화능력, 힘든 상황에서 위험에 대처하고 극복하여 자신의 안

16) 에드워드 손다이크(Edward Thorndike)- 미국의 심리학자로 연결주의와 교육심리학의 창시자. 동물심리 실험의 선구자로 동물심리학 연구 분야를 개척했다.
17)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는 미국 펜실베니아 태생, 미래 교육의 대안을 연구하는 Haruard Project Zero, Good Work Project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과제를 책임지고 있다.
18) 안은미, "감성과 감각교육을 적용한 미술교육",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p.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정감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능력이다.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면 미래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갖고 있어야하는데, 이와 더불어 용기와 의지가 필요함이 분명하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무리 높더라도 그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동기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의지와 용기가 없다면 그 능력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그 동기와 의지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곧 감성지능이다.

2) 감성지능과 미술교육의 관계

(1) 감성과 미술교육

우리는 지나치게 이성적인 면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사람과 사람사이에 가장 필요한 소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포기하는 현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소통의 감소와 부재는 곧 인간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인 감성의 결핍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 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감성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어 조화롭고 긍정적인 발달시켜야 한다. 개인의 측면에서는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으로 가는 자아실현과 성취의 기회를 만들어 낼 것이며, 이는 곧 인류가 평화롭고 자유롭게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감성의 개념을 알아보겠다. 감성은 철학의 이성에 대비되는 마음의 능력에 대한 용어로 심리학에서 많이 쓰였으며,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감각을 매개로 하여 받아들이는 능력' 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감성이라는 능력은 고통이나 쾌감, 두려움과 같은 어느 특정 느낌, 또는 감정을 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으며 경험의 성질을 가능하게 한다.[19] 또한 감성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정서와 감정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정서는 인지적, 생물학적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개인이 외부자극을 인지적으로 평가하고 주관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발생하는 신체적, 생리적 반응의 상태라고 하며 자신이나 타인을 인식, 표현하고 조절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감정은 인간의 감각적인 특성인 감성의 결과물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통해 얻어진 감성에 따라 형성되며 그 기분이나 느낌을 인지하고 조절, 통제하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표현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감성과 비슷한 개념으로 감정, 정서 등을 거의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문맥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감성은 인간의 여러 측면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 정서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나름대로의 생각과 의미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생리적, 신체적 변화를 일으킨다.

인간의 삶에서 최종목표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개인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행복감이라 하는 것은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새로움과 흥미를 스스로 탐색 · 발견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한 창의적인 활동의 결과에서 얻어지는 뇌의 반응이다.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과열된 입시위주의 교육 앞에서 매일을 똑같은 패턴으로 지내는 아이들은 진정한 행복의 가치에서 멀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아이들의 감성변화와 정서형성의 균형 잡힌 발달을 위해 체계적으로 조직화하여 교육할 필요성과 의무가 있다.

그 중 하나가 가장 효과적인 교육매체에 해당하는 미술을 통한 교육이다. 우리는 이미 미술 교육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많은 연구들을 접할 수 있듯이 미술은 궁극적으로 우뇌의 활동 영역으로 우뇌로부터 행복감이 생성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감안하면 미술은 아이들에게 삶의 목표를 찾아가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개인과 사회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에너지로서 작용한다. 어느

19) 권미혜, “오감을 활용한 미술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1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시대나 미술엔 당대의 삶이 담겨 있듯이 미술을 접하는 일이란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 경험이 축척된다면 자연스럽게 삶을 바라보는 안목이 길러지며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의 실현 가능성과 사고의 틀을 형성하게 되고 더 나아가 사회적 힘을 키우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술을 통한 교육은 통합적 기능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자아 계발과 사회성 계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체이다.

하지만 감성과 감성지능(EQ)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쉽게 감성에 빠진다고 해서 감성지능이 높은 것은 아니며 감성지능은 감성에 이성을 더했을 때 발휘된다.[20] 따라서 우리는 미술교육을 통해 풍부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갖고 자신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감성지능도 더불어 높여야한다.

그러므로 미래를 살아가야 할 현대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는 감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이해와 교육적인 계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술이라는 매체는 아이들이 자신의 다양한 감정을 인지하여 감정을 조절하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감정적 자기인식이 이루어지면 타인과의 감정교류를 가능하게 하여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방식과 대인관계 능력을 기르게 되며 이를 통해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시각을 가지도록 변화시켜 삶의 목표 설정에 있어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개인의 특성에 맞는 세심한 배려와 교육환경이 형성되어야 한다.

20) 문선우, “미술 교육에 있어서의 감성지능에 관한 연구”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6, p.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감성지능을 위한 미술교육의 역할

감성지능은 자신 및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 수용하는 능력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정서 교육의 첫 단계이다. 이는 인지발달, 정서발달, 신체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타인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능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

청소년들은 미술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또한 공동 작업이나 친구와 의견을 나누는 활동은 서로의 의도를 이해하고 정서적 유대감 형성에 도움을 준다. 그렇다면 미술교육이 감성지능을 효과적으로 계발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감성지능의 능력이 미술교육을 통해 효과적으로 계발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아야 가능하다.[21]

첫 번째로 미술교육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게 되는데, 미술은 자신을 표현하는 비언어적이지만 직접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 그대로 표현되고, 표현된 것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게 되며 이 같은 자기의 감정을 미술활동을 통해 시각화하여 표현한다. 학생이 선택하여 사용한 색이나 작은 선에서도 그들의 감정이 내포되어 있다.

두 번째로 미술교육은 자기감정 조절에 도움이 된다. 우리는 보통 스트레스를 받으면 종이에 마구 낙서를 할 때가 많다. 학생들은 그림을 그리고 무엇인가를 만드는 미술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고 치유한다. 자유롭게 낙서를 하고 무언가를 집중하여 만드는 사이 분노나 스트레스는 없어지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미술은 청소년의 정서 함양에 바람직한 교과인 것이다.

이렇게 미술이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시각화하여 표현한다. 보여지는 이미지뿐 아니라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정서가 표출된 것이다. 이렇듯 인간의

21) 전성수, “감성지능 계발을 위한 미술 교육방안” , 서울교육대학교 초등 교육연구소,1999, p.32.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정서를 표현하는 미술 교육은 감성지능에 있어 '자기 동기화 능력'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미술교육에서 가장 관련성이 깊은 것으로 '자기 동기화 능력'을 들 수 있는데, 자기 동기화 능력은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을 말한다.

세 번째로 미술교육에 있어 '자기 동기화 능력'은 창의성의 개념과 일맥상통하는데 일상 속에서 디자인, 예술 작품 등을 보며 자신의 감정, 생각에 내포된 정서를 인식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새로운 정서를 부추기는 능력이다. 정서는 내적 능력을 활용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목표를 설정하고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것을 어떻게 계발하고 활용하는 가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촉진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잠재울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미술에 소질이 없는 아이에게 교사의 칭찬은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어 능력을 계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자기 동기부여는 미술수업에서 가장 강조되는데 스스로에게 미술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동기는 자신이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부여하는 무엇이 아니다. 교사는 단지 학생 스스로 동기를 갖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교사가 수업에서 동기부여만 성공하면 그 수업은 성공한 것으로 본다. 미술은 학생이 그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 교사는 동기부여를 통해 학생이 각자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찾아가도록 발상을 자극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동기가 부여되지 않고서 좋은 표현작품은 나올 수 없다. 학생들은 미술수업에서 교사의 동기부여에 따라 자기 동기를 갖는 습관을 기르게 되므로 미술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기 동기부여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동기부여는 사건이나 사물, 인물, 장소 등에 대해 학생이 예전에 보고 느낀 것을 상상력과 표현력을 활용하여 시각화하며 그림 그리기 전 학생의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동기는 대부분 현재 손에 쥐고 있는 재료 자체에서나, 과거의 경험을 현재에서 다시 떠올리는 것 둘 중 하나로부터 유발된다. 그러므로 재료에 대해 다양하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야기 해보거나 각자의 경험과 느낌을 되살리는 것은 동기를 유발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인간에게 자기 동기를 부여하는 일은 항상 필요하며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했을 때와 그렇지 않은 때에는 많은 것에서 차이가 난다. 이처럼 스스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미술은 표현의 결과보다 표현과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학생이 미술활동을 통해 자신 스스로를 인식하여 발견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억눌렸던 심리적인 욕구나 정서를 회복할 수 있으며 작업 활동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할 수도 있다.

네 번째로 미술교육에서는 감상을 통해 타인의 감정을 읽는 것을 통해 심미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감상교육은 감상 작품을 통해 작가의 감정과 의도를 알 수 있는 경험이 되고, 다른 친구들이 표현한 작품에서 그 친구의 감정, 그 친구의 의도와 생각을 읽는 활동을 계속하게 됨으로 이러한 감정을 통해 감정이입을 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서 타인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마지막으로 다른 과목과는 달리 미술에서는 정답이 없으며 공동 작업을 통해 친구들과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 특히 협동하여 완성해야하는 공동작업은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각자의 개성을 살리는 동시에 협동심과 동료애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미술교육은 본질적으로 정서나 감성과 직결되어 감성지능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다양한 미술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감성지능의 능력들이 길러질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감성지능의 교육적 가치

최근 들어 감성과 관련된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대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감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텔레비전 광고를 봐도 이성에 호소하는 광고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광고가 많아지고 있고 상품의 스펙보다는 이미지나 감각적인 측면에 따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즉, 사회 전반에 감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것은 교육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IQ가 중시되는 교육풍토의 문제점으로 요즘 아이들은 학식을 쌓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 감성을 계발할 시간이 많지 않다. 그리하여 요즘 학교 안에서 아이들의 모습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이익과 생각에만 관심이 있다. 현저하게 자기 통제력이 없고 학습 능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며 다른 사람의 권리나 감정을 고려하고 존중해 주려는 태도를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자극에 과민해 자신을 위협한다고 받아들여 남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타인에 대한 동정심이나, 감정이입 또는 최소한 타인에 대한 이해심조차도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자기 통제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경우 끊임없이 싸움이 벌어지고 무모한 행동을 보이며 잘못을 저지르고도 죄책감이 없는 아동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정서불안증을 보이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급우들의 집단 따돌림, 자살, 청소년의 비행과 폭력 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제까지의 지적인 능력을 강조하던 교육의 근본으로부터 전환이 필요함을 실감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감성지능의 중요성을 느끼고 감성지능 중심의 교육을 생각하였다.

감성지능은 IQ와는 달리 개인의 능력이 아닌 공동체의 삶을 살기위해 꼭 필요한 능력이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능력이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 감성지능의 계발은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아이들 앞에 펼쳐진 21세기에는 올바른 인격 형성으로 자신의 꿈과 희망을 자신이 직접 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스로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자신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존중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야 말로 정서적 교육의 진정한 의미로 뿌리 내려야 한다.

이처럼 감성지능은 오늘날 지적능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그 지평을 점점 넓혀가고 있다는 점, 인간을 보는 관심의 시각과 가치를 재정립하였다는 점, 인성교육을 위한 이론적 배경과 그에 맞는 교육의 역할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 진정한 자아를 확립하고 성찰할 시간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를 높이 평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되어야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Ⅲ. 오감활용과 미술교육

1. 미술교육에서의 오감활용

1) 오감의 이해

여행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이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과 인기를 받고 있다. 모니터 속 그들을 보고 있으면 마치 내가 그곳에 있는 것 같은 듯한 느낌을 누구나 한번쯤 느낀 적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니터 속 세상을 보고 있을 뿐 아이슬란드의 차가운 공기도, 아프리카 사막 모래의 고운 촉감도 느낄 수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로지 시각뿐일지라도 그것을 통해 다른 모든 감각도 충족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의 감각은 점점 차단되어 무뎌져 가고 있다.

안타깝게도 요즘 아이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시대가 변하면서 TV나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먼저 접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움직이며 놀 때 가장 많이 주변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데 말이다. 바닷가의 조개껍질을 직접 보고 만진 아이는 조개껍질이 '단단하지만 표면이 까칠한 것'이라는 사실을 몸소 느끼고 배운다. 출렁이는 파도에 자갈들이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바닷물의 짭조름한 냄새도 맡을 줄 안다. 이렇게 만지고, 냄새를 맡고, 듣고 가지고 놀며 오감을 통해 얻어낸 경험으로 생각할 기회를 가져 자유로이 사고하고 표현한다.

우리는 우리가 알기 전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엄마의 품속에 안기면서 안정을 취하고 주위의 소리와 온도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러한 감각기관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태어나면서부터 급속도로 발달하여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도록 도와주며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감각적 자극이 주어진다면 그 감각과 관련된 지능이 발달할 수 있다.

감각은 '감각 기관을 통하여 감지할 수 있는 자극을 통한 경험, 또는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 이라고도 하며 어떤 종류의 감각 경험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모두 가리킬 때 사용된다. 감각을 통하여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하는 것에 따라서 크기와 색, 소리의 크기와 정도, 뜨겁고 차가움 등을 지각할 수 있다. 자극이 몸에 전해졌을 때 여러 작용을 거친 다음 중추신경으로 전해졌을 때 일어나는 반응을 감각이라고 하며 그것이 어떤 자극인지를 뇌의 기능을 통해 알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지각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감각은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맛보고, 만지는 등의 행동을 통해 사물을 감지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것은 밝다, 아름답다, 향기롭다, 둥글다 등의 여러 개념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표현 활동의 기초가 된다.

감각의 발달은 감각운동의 자극에 의해 형성되므로 표현 교육에서 관련성이 깊으며 중요한 영향을 준다. 표현 능력의 발달이 일어나면 감각을 통해서 행하여지는 것이고 감각을 발달시키면 표현 능력의 발달을 촉구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약 140억 개의 뇌세포를 지니고 태어나는데 특이하게도 자체 세포분열을 하지 않고 자라면서 수상돌기의 시냅스가 복잡하게 얽히며 발달한다. 한마디로 머리의 좋고 나쁨은 이 신경세포의 얽히는 정도, 즉 시냅스가 얼마나 정교하게 발달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전문가와 뇌 과학자들은 뇌세포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오감 자극'이라고 강조한다. 우리의 몸은 눈이나 귀를 통해 자극을 받으면 그 정보를 뇌로 보낸다. 피부도 접촉, 통증, 따스함, 압력 등을 느끼면 역시 뇌로 보낸다. 청각, 시각, 촉각. 후각, 미각을 통한 경험이 뇌세포에 전달될 때 더욱 많은 시냅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감자극은 감각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우리의 지각을 오감이라 하여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으로 이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기한다. 시각은 눈을 통하여 보고 청각은 귀를 통하여 음의 정도나 크기를 들어 얻고, 미각은 입의 혀를 통하여 맛보고, 후각은 코를 통하여 냄새를 맡고, 촉각은 온몸의 피부를 통하여 감촉을 느끼는 것이다. 각각의 역할을 갖고 있는 이 감각들은 제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기관이 모두 연결되어 인식되어지기에 하나의 감각이기도 하다. 예를 들자면 어딘가에 부딪쳐 아픔을 느끼고 울면서 소리를 익히고 엄마를 안으면서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오감은 사물을 접함에 있어 무의미하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때로는 아픔을 주며 더 다양하고 복잡한 여러 감각을 익히게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듯 보다 정확히 사물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오감의 발달이 필요하다. 감각은 교육에서 하나의 도구로써 작용하는데, 감각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오감 발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감각기관을 통한 자극이 자신의 감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둘러싼 주변의 변화를 정확하고 민첩하게 파악해야 하며 그에 알맞은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생활 해나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감각기관을 통해 주변의 상황이나 변화를 인지하고 파악하는 것을 감각활동이라고 한다. 감각은 모든 지식의 근본적인 역할로써 아이들의 지능발달의 기초를 이루며 사물을 아는 인식의 첫 형식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높다.

'프루스트 효과'라는 말이 있다. 신경심리학자들이 기억에 대해 논할 때만 곧잘 등장하는 용어로 마르셀 프루스트의 유명한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주인공은 마들렌의 냄새를 맡으며 어린 시절을 회상한다. 마들렌을 맛보는 순간, 그 맛과 향이 뉴런을 자극해 유년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 프루스트 효과는 후각적 자극이 마음 속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후각이 기억과 밀접한 상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관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며 당시의 상황과 감정이 냄새에 섞여 각인되어 있다. 나쁜 상황에서 맡았던 냄새는 나쁜 기억을 담고, 행복한 상황에서 맡았던 냄새는 행복한 기억을 담는 것이다. 동네 운동센터에서 코를 찌르는 락스 냄새를 맡는 순간 수영장 타일 바닥의 감촉에서부터 수영장 가득 울려 퍼지던 호루라기 소리까지 한꺼번에 떠오르는 경험은 누구나 해봤을 것이다. 기억을 불러오는 감각은 후각 뿐 아니다. 오래된 가요를 듣는 순간 그 노래가 유행했던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게 되는 것도 매우 다반사. 이렇게 직접 감각을 통해 쌓은 경험은 무의식 속 숨어있던 기억의 조각을 모아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과 경험이 모여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내가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한다.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고 오감을 만족시킬 때 비로소 행복해 지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부모들은 아이에게 다양한 경험보다는 인지나 학습적인 부분에 더 신경 쓰는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학교가 그렇고, 입시제도가 그렇듯이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여백의 시간이 도통 없다. 하지만 그날의 하늘이 다르고, 바람이 다르고, 길에 떨어진 나뭇잎이 다르다. 비싼 교구를 들이거나 학원에 보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아이들의 오감을 깨울 수 있다. 자신이 가진 오감을 통해 스스로 직접 많이 느끼는 경험이 쌓여 삶의 에너지가 되고 그에 따른 능력들도 따라 올 것이다.

2) 오감의 발달

오감(五感, five sense)의 사전적 의미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5가지 감각으로 감각을 신체에 있는 감각수용기의 종류로 분류한 것이다.[22] 시각의 감각기관은 눈이며, 수용기[23]는 망막에 있으며 청각의 감각기관은 귀이

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23) 감각기관에서 적합자극을 직접 수용하는 세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고, 수용기는 내이(內耳)의 달팽이관 속에 들어 있다. 후각의 감각기관은 코이며, 수용기는 비점막 속에 들어 있다. 미각의 감각기관은 입 안의 혀이고, 수용기는 혀의 미뢰 속에 있다. 촉각의 감각기관은 피부이며, 피부 감각 수용기는 온점·냉점·통점 ·압력이다.

감각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 사람의 의식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감각기관이 외부의 물리적 자극을 전기적 신호의 한 형태인 활동 전위로 바꾸면, 신경을 통해 뇌까지 활동 전위가 전달이 된다. 이렇게 전달된 활동 전위는 뉴런의 말단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뇌 속으로 분비되도록 한다.[24] 이리하여 뇌 속에 변화가 생기게 되어 사람의 의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또한 오감은 여러 종류의 자극에 감각적으로 반응하게 되는데 이때 감각의 질의 차이 즉, 빛의 파장, 화학종, 소리의 진동수와 변화패턴, 힘이 가해지는 속도, 방향, 넓이 등에 따라 자극을 식별한다. 서구 근대철학에서는 '오감이 마비되고 오감이 오염되고 오감이 상호 연관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성이란 것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오감을 통한 자극은 두뇌 성장 발달에 중요하므로 감각과 신체적 발달, 인지·정서발달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인지하고 파악하는 단계에서 감각별 탐색용어가 정확히 정해져 있지 못하다면 모호한 결과를 낳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위해 감각의 지각을 위한 탐색 활동에서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지시하는 탐색용어가 필요하다. 감각의 특성에 따라 오감 탐색용어 및 기준인 오감체험 전략은 <표 1>과 같다.

24) 네이버 위키백과 www.ko.wikipedia.org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1> 오감 탐색용어 (박수진 · 김용익, 2013)

구분	오감탐색 용어	오감 탐색 기준
시각	보다, 살피다, 관찰하다, 시선을 이동하다, 눈의 위치를 바꾸어 보다, 부분을 집중하여 보다, 멀리서 전체를 보다, 눈에 띄는 것을 보다, 색을 구별하다, 밝고 어두운 정도를 살피다.	색상, 형태, 움직임
청각	들어보다, 소리를 구별하다, 몇가지 소리인지 구별하다, 소리의 높낮이를 살피다, 귀를 기울이다, 두드려보다	소리의 구별, 소리의 크기와 높이, 소리의 음색, 조화
촉각	문지르다, 만져보다, 주물러보다, 대어보다, 찌르다, 비비다, 당기다, 찢다, 누르다, 핥다, 쓰다듬다, 따끔하게 하다, 들다, 얼얼하다, 스치다, 긁다, 두드리다, 더듬다, 입 맞추다, 안아보다	질감, 형태, 압박, 온도, 수분, 촉각 수용기
후각	냄새를 맡다, 숨을 들이마시다, 바람을 일으켜 냄새를 맡다	강도, 구별, 과정, 시간, 공간
미각	맛을 보다, 혀의 위치에 다른 맛을 보다, 혀에서 굴려보다, 핥아보다, 씹다, 마시다, 혀로 음식을 굴리다, 빨다	강도, 구별 (쓴맛, 신맛, 단맛, 짠맛)

따라서 인간은 태어나기 전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오감을 통해 감각을 느끼며 세상과 소통하는 존재이다. 사물을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만지고, 맛을 느낄 때 모든 기관들이 함께 상호 보완하여 인지한다. 즉, 오감(五感)을 통하여 주변 환경을 자연스럽고 보다 명확하게 지각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경험이 필요하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① 시각

감각의 민감도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청각이나 후각, 미각, 촉각에 예민한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포함하여 사람은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대부분을 시각에 의지한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사람은 주변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가운데 70~80%를 시각에서 얻고 있다고 하며 특히 성장기 아이들의 시각을 통한 경험은 인지적 활동을 자극해 시각적 정보를 조작하며 형체의 의미를 추론하고 행동을 예측하며, 통제하는데 동기를 부여하며 상상력과 사고력계발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곰브리치의 '미술과 시지각'에 따르면 인간의 시지각 자체는 개념적 사유라는 틀에서 이루어지며 '사물을 지각 할 때 우리는 오로지 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하여 그 사물을 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인지할 때, 그 대상을 전체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부분을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② 청각

청각은 인간의 신체감각 중에서 제일 먼저 발달하는 감각으로써 언어발달에 가장 중요한 소리지각능력이다. 청각 자극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뇌의 측두엽과 같은 경우 단순히 청각인지 뿐만 아니라 기억과 언어, 학습 능력까지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청각에 대한 자극은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원활한 청각 발달을 시켜주는 것은 언어 및 인지 발달에도 있어 큰 영향을 준다. 청각은 시각과 동시에 발달하면서 상호협응을 통해 반응하게 되며 또한 아이들의 청각적 지각발달은 단순히 소리를 듣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 뿐 아니라 음악적 경험에 대한 감각적인 반응을 여러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듯 청각은 항상 열려있는 감각이지만 의식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의외로 가장 발달시키기 어려운 감각이다. 청각을 발달시키려면 다양한 소리를 접할 기회를 만들어주면 청각 신경세포가 발달하는 동시에 뇌세포도 함께 발달할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③ 후각

후각은 어릴 때 발달하여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약해지지만 우리가 주변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냄새의 원인이 되는 물질에서부터 나온 휘발성 미립자가 공기 중에 섞여 코로 들어가 상피세포를 자극하고 상피세포에 있는 후각 수용체가 냄새를 감지한다. 그러면 상피세포가 활성화되어 신호가 발생하고 이 신호가 뇌로 전달된다. 뇌는 이런 냄새를 기억해두었다가 비슷한 냄새가 나면 기억을 되살리며 그로 인해 우리는 다양한 냄새를 구분할 수 있다. 이렇듯 감각정보를 기억하는 바탕이 되어 회상이나 상상력에 도움을 주며 냄새를 통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난다. 또한 오감 중 오직 후각만이 식욕 등 원시적인 감정을 관장하는 대뇌변연계와 직접 연결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본능적인 감정과 결부되어 있어 해로운 물질과 유익한 물질에 대해 감정적 요소들을 부여하고 대개 미각과 함께 작용한다. 그러므로 후각을 통한 자극은 아이들의 감정 변화를 나타내는 활동에 바람직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의식적으로 다양한 향을 맡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④ 촉각

촉각은 태아에게 가장 먼저 생기는 기관인 '피부'를 통해 느낄 수 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시각, 청각, 후각, 미각의 기능은 퇴화되어 기능이 저하되지만 촉각은 나이가 들수록 민감해지고 예민해지며 주위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지발달에 중요하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교감은 머리가 아닌 피부로 시작된다고 하여 'Skin ship' 이라는 말의 유래가 있듯이 온몸의 피부를 통해 느끼는 감각이기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안아주거나 쓰다듬는 행동은 행복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며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교감하는 행동의 양식이다. 촉각은 사물을 만질 때 서로 다른 표면의 성질을 받아들이는 역할, 즉 사물을 만짐으로써 성질을 발견하고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성장함에 따라 소근육의 발달로 정교하게 완성된다. 피부는 뇌와 풍부한 신경회로로 연결되어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아주 약한 자극도 뇌에 잘 전달된다. 따라서 촉감과 질감재료를 통한 미술활동이 장려되어야 한다.

⑤ 미각

미각은 오감 중에서 인간 욕구에 가장 가깝고 충실한 감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하게 구별 가능하다. 미각을 느낄 수 있는 혀의 맛 봉오리의 수는 2세나 3세 정도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하다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른 감각보다 훨씬 빨리 더 많이 줄어든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미각능력을 개발해주는 노력이 평생 필요하며 후각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다양한 음식을 맛보며 그것의 냄새를 함께 맡고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를 통해 단맛, 쓴맛, 신맛, 짠맛 등을 직접 경험하며 혀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감각적 경험의 기회를 자주 갖게 하는 것이 인지 발달에 좋다.

3) 오감과 미술표현

인간은 의식하지 못하는 미약한 자극도 잠재의식 속에서 기억되어 본능적으로 자신의 욕구나 생각, 감정 등을 표현한다.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대상이나 개념을 몸짓 또는 상징형태로 표현하고, 사물을 묘사해내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즉, 자신의 본능적인 표현 욕구를 미술을 통하여 드러내고 표현한다. 동기를 유발하여 스스로 그림을 그리고 싶게 하는 마음을 들게 하는 것부터 미술을 표현하는 과정, 그것을 해냈을 때 완성을 통한 성취감 및 만족감을 느끼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기쁨을 얻는 동시에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감정 등이 발산되어 정서적인 안정을 찾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게 된다.

미술 활동은 특별한 재능을 키워 아이들을 예술가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을 지닌 건강한 성장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전인교육이다. 아이들이 미술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표현에 따르는 경험을 얻는 것으로 청소년기의 자아형성, 정서적인 안정과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하도록 돕는다. 오감을 통한 미술활동은 지각, 이해, 표현, 판단 등 모든 것이 함께 하는 활동이고, 주변의 사물을 관찰하고 기억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주거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시각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실제 보았던 대상을 단순히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하고 재결합하여 하나의 이미지에 종합해 표현하는 과정은 아이들의 학습, 사회정서 및 인지 발달 등을 도모한다.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흥미를 느낄 수 있고 동기를 유발해내는 미술활동을 위해서는 사회 · 과학 · 역사 · 경제 등 다양한 분야와 영역을 미술과 접목시켜 통합된 교육형태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모든 감각을 통합하고 조절하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감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미술활동이 구성되어야 한다.[25]

아이들은 모든 종류의 감각정보를 동원하여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종합하여 받아들이고 그것을 체계화함으로써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성장과 발달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다양한 감각을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통합적 미술활동을 구성해야한다. 아이들은 오감각을 통해 자신의 주변 모든 것에서 다양한 사물과 재료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풍부한 자기 표현력과 사고력이 발달한다. 소재의 두께, 무게와 온도, 크기 등 특성을 가지고 있는 요소를 관찰하고 발견하며 다양한 사물을 자주 접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술활동에서 재료를 선정할 때 찰흙, 석고와 같은 촉감과 질감을 느낄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

25) 권미혜, “오감을 활용한 미술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2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아이들은 미술활동에서 대상이 되는 것들의 특징이 되는 요소를 모든 감각을 통해 관찰하고 인지하여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감정이나 심리를 감각적 지각과 판단을 바탕으로 표현한다. 감각적 경험을 통한 교육은 청소년기 아이들의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찾아 계발 시키며 올바른 성장을 도모한다. 또한 미술활동에서 교사의 역할은 아이들이 감각을 통해 느끼고 경험한 것과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며 더 나아가 교우간의 심미적인 상호작용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오감을 활용한 감각의 경험이 다양한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이고 참신하게 표현하는 반면 감각 경험이 부족한 아이들은 표현하는 것 자체에 자신감이 없고 어려워하여 교사나 친구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오감을 활용한 감각 경험은 아이들의 호기심과 동기를 유발하고 풍부한 정서와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4) 미술을 통한 오감활용의 교육적 의의

아이들은 미술을 통해 자신에게 내재되어있는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직접적인 매체로써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26] 아이들은 어떠한 대상물을 보고 그리는 것만이 아닌 자신의 모든 감각을 통해 느끼고 경험한 것을 표현한다. 이렇듯 인간의 기본욕구인 오감을 활용하여 미술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아이는 주변 세계와의 지속적인 감각적 상호 작용을 통해 미적인 감각을 풍부하게 하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와준다.

코메니우스(Comenius)는 감각기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최초로 오감의 경험에 의한 감각교육의 기반을 형성하였다.[27] 감각기관을 통해 지각되는 사물을

26) 박아림, “감성지능 향상을 위한 미술 교육 지도방안 연구: 초등학교 중학교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21.
27) 김정.「아동과 미술교육」, 배영사, 1998, p.4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인지하는 것은 인식의 최초 단계이며, 사물을 직접 관찰하였을 때 흥미를 느껴 학습의 빠른 이해와 습득을 돕고 학습 욕구 또한 상승된다고 하였다. 이렇듯 아이들이 사물을 관찰하고 경험할 때 감각에 의하여 파악되어야 하고, 지식은 먼저 감각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감각교육은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사물의 각 부분을 종합하여 완성된 전체를 형성해 가는 감각적 훈련을 통하여 형태, 크기, 색, 무게, 온도, 소리 등에 대한 시각, 촉각, 청각 등의 감각 변별 기술이나 개념 등을 파악하게 하는 교육이다.[28]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감각'이란 일종의 앎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외부세계인 물질과 내부세계인 의식에 위치하여 사물과 결합시키는 작용이라 하였으며, 칸트(Kant)는 사물자체가 감성을 촉발하고 그로인한 여러 감각자료가 감각적 직관이 생긴다고 하였다.[29] 감각적 직관은 감각적 자료와 감성의 형식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감성은 심미적 직관에 의존함에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지적하였다. 이렇듯 직접적으로 감각을 통해 쌓은 경험은 배워나가는 아이들에게 단순한 자극을 넘어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과 소통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루소(Rousseau)는 감각기관을 정확하게 이용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을 위한 것이며 따라서 감각기관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30] 그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등 5가지 감각으로 나누어 훈련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각의 감각은 서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해줌으로써 보다 빠르게 정확하게 지식을 획득하고 사물을 인지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곧 루소가 단지 개별적인 감각을 훈련하는 것이 아닌 인지능력의 확대와 언어 및 지적발달을 촉진시키고 건강한 심신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이들은 전적으로 실제 사물에 대한 경험에 의존하는데 그것은 감각으로 기억되어 있다가 이성이

28) 노은진, "오감 활용을 통한 미술과 교수·학습 활동의 효과 연구", 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p.25.
29) 임부연, "유아기 심미감 발달과 연계한 물감수업의 탐구", 미술교육논총 제 19회.
30) 김정.「아동과 미술교육」, 배영사, 1998, p.4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출현하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지적 이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았다.[31] 따라서 이성이 감각적 경험으로부터 발달하기에 감각은 인식의 출발점이며, 이것은 또한 지적인 이성의 출발점이자 기초로 작용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감을 통한 교육은 지적발달과 불가분한 관계에 놓여있으며, 아이들이 자연 및 주변에서 자신의 소질에 맞는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다면 자연스럽게 지식을 획득하고 사고력 계발과 같은 지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아른하임(Arnheim)[32]은 감각이 환경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수단임을 주장하며 '우리의 감각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에 의해서 사물을 파악하는 재능을 져버리고 있다'고 전한다.[33] 또 '우리들의 눈은 측정하고 확인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추락하여,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결핍되어가고, 우리들이 본 것에서 의미를 발견해내는 능력이 결여되어가고 있다'고 하며 시각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을 발현해야 됨을 말하고 있다. 아른하임은 시각의 특성인 균형, 형, 성장, 공간, 빛, 색, 운동, 긴장, 표현을 통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듀이(Dewey)는 예술은 곧 경험이라는 예술에 대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면서 경험을 새로운 가능성이 실현이 되는 기회로 보고 모든 교육 속에서 특히 미술교육을 통해 가장 잘 성취될 수 있다고 말한다.[34]

예술이란 감각과 정서·심리 그리고 지적 만족이 모두 더해진 인간의 활동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에 듀이의 이론은 일상 경험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며 그러한 경험은 내적에서 완성되어 미적경험으로 완성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오감활용을 통한 미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것을 적절히 활용하였을 때 작품 활동에 도움을 주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한다는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

31) 김선현. 「감성 발달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아담북스, 2011, p.59.
32) 아른하임의 '시지각이론'은 형태심리학이나 인지심리학의 흐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우리가 사용하는 감각을 형식화하는 과정에 필요한 설명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33) 김춘일 · 김성구.「유아를 위한 미술교육」,미진사, 1998, p.84.
34) 김춘일 · 김성구.ibid., p.92.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발도르프 학교의 설립자로 알려진 독일의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는 인지를 바탕으로 한 '예술로서의 교육'을 지향한다.[35] 그는 기존의 지식전달과 기술축적만을 목표로 하는 교육을 '죽은 교육'이라 보며 진정한 교육은 아이의 내면세계를 세상과의 연관성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인간의 감각을 12개로 확장하여 설명하면서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기회를 통해 아이들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상상할 수 있게끔 한다. 교사 또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며 아이들의 상상력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는 정신과 마음, 몸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여러 의미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인간을 육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감각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36] 요컨대, 그는 감각교육을 통해 인간과 자연, 인간과 세계와 소통이 가능한 완전한 공감각을 가진 전인교육을 기대하였다.

몬테소리(Montessori)는 감각이론에 근거하여 오감을 활용할 수 있는 감각교육을 교구로 개발하였다.[37]

그에 의하면 아이들은 정신·인지가 발달할 때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주변 환경으로부터 흡수하여 자신의 무의식 속에 기억해두었다가 의식세계로 끌어낸다. 즉, 주변 환경에서에서 받게 되는 자극은 감각기관이 수용하게 되고 그것은 다시 뇌에 전달되어 지각신경을 통하여 근육에 전달되면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아이의 정신과 인지적 발달이 감각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감각운동의 발달에 기초함을 의미한다. 그는 인간을 자신의 주변 환경과 접하면서 경험을 통해 배우며 스스로 탐색하여 발전해 가는 능동적인 존재이자 또 그럴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보았다. 따라서 오감의 기능을 활용한 감각교육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8]

---

35) 김성숙, "발도로프학교의 미술교육에 관한 연구",한국교육대학교 미술교육학 회 제 11집 1호,2002,p.10
36) 김성숙, ibid.,p.10
37) 이채원, "옻칠매체를 활용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연구: 몬테소리의 오감발달 이론을 중심으로",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15, p.63.
38) 김선애. "몬테소리 감각교육이 유아의 지각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p.5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첫째, 오감을 통해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고 몰입하여 대상을 인지하고, 그 대상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올바른 관념을 가질 수 있다.

둘째, 자신의 감각기관의 감각을 활용하여 실제 사물을 지각하고 개념을 정립하는 데 기초가 되며 첫 출발이 된다.

셋째, 손을 사용한 감각운동은 뇌에 직접적인 자극을 전달하는 매체로써 개념과 지능을 갖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넷째, 평소 주변의 다양한 사물을 관찰하고 탐색하는 습관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준다.

다섯째, 다양하고 여러 감각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인 사고와 바른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육성되어 자아발견과 인격형성의 기초를 만든다.

여섯째, 스스로 경험한 감각에 의해 얻어진 지식은 체계화되어 지적 이성으로 이끌어 내진다.

위에서 살펴 본 내용과 같이 오감을 활용한 감각교육은 경험을 통해 얻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사고하는 인간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아이들에게 지식만을 주입시키는 것보다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유연한 사고가 이루어지며 오감을 활용한 활동을 통하여 심미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동시에 기본적인 학습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오감활용 미술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

1) 현행 미술 교육과정을 통한 오감활용 미술교육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교육과정의 개정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 현장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미술 교육의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면서 명료화한다. 둘째, 학습자에게 필요한 문화적 소양 능력과 정보화 사회의 시각문화에 대한 인식 능력을 길러주기 위함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하는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개정방향과 중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적 인식 능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둘째, 시각문화에 대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셋째, 교육과정을 명료화 한다.
넷째, 미술 교과 내외의 통합적 활동을 수용한다.[39]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체험, 표현, 감상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체계화하였다. 이는 미술학습을 실제 환경과 연관시킴으로써 미술의 소통과 사회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며 시각 문화에 대한 건전한 비판의식을 통하여 미적 안목을 형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가 제시하는 오감을 활용한 교육은 세 영역 중 체험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009 개정 교육과정 체험영역에 중점을 두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2009 개정 교육과정상의 체험 영역의 시작은 제 6차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미술과 생활 영역을 발전 시켜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

39) 교육과학기술부, 「미술과 교육과정」, 제2011 361호, 201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에서 미적 체험 영역을 설정하면서 부터이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의 '미술과 생활' 단원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미적 체험 영역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미술 교육과정의 큰 변화이며, 이전의 표현주의 미술교육과정에서 탈피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흐름은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주변 환경과 학습자에 대한 감수성과 직관으로 대상을 이해하고 미적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다음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의 체험 영역이 담고 있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미적 감수성을 기른다.[40]

이는 미술 경험을 통해 생활 속의 시각 환경 이해 및 사회적 소통 능력을 육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공통교육과정의 중학교 체험 영역에서는 지각과 소통이라는 중영역으로 명칭을 제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각

주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대상과 자신을 이해하고 조화를 발견한다.

㉠ 주변 환경과 대상의 관계를 탐구하고 조화를 이루는 방식을 이해한다.

(활동의 예)

- 주변 환경에서 자연물과 인공물이 조화를 이루는 예를 찾아본다.
- 인간 생활을 고려한 생활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주변 환경과 자신의 관계를 탐구하여 나타내기

자신과 주변의 사회적 관계를 탐구하여 시각 이미지로 나타낸다.

(활동의 예)

- 자신과 타인의 관례를 나타내는 시각 이미지를 수집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관하여 토론하고 시각 이미지로 나타낸다.

② 소통

40) 교육과학기술부, 「미술과 교육과정」, 제2011 361호, 2011, p.2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시각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고 참여 방안을 모색한다.

㉠ 시각 문화에 반영된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사회 구성원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이 시각 문화에 반영되어 있음을 이해한다.

(활동의 예)

- 현대 사회에서의 서로 다른 집단이나 사회의 시각문화를 비교함으로써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의 차이를 안다.
- 현대 사회에서 시각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을 알아보고 역할과 기능을 이해한다.

㉡ 시각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회 문화적 의미를 전달하기

사회 문화적 이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시각 이미지를 활용하여 전달한다.

(활동의 예)

- 사회 문화적 이슈를 나타내는 시각 이미지를 찾아본다.
- 시각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회 문화적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나타낸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체험 영역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짐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여전히 미적 감수성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현행 오감활용 미술교육의 문제점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시대에 맞는 올바른 안목과 교육을 위하여 변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미술 교육의 목표 실현을 위해 미적 체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체험 중심의 교육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을 가져 오고 있으며 잘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다음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교육과정을 통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미적 체험영역은 한정된 체험만을 강조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세부 내용에서 미적인 요소는 배제한 채, 아이들의 한정된 체험만을 강조한 내용 구성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지나치게 현실 종속적이며 체험 영역은 체험의 가능성이 닫혀진 학습이 제시되어 있다. 교육과정 상에서 실제적인 지도방안으로 체험영역의 세부내용이 미술교육의 의의와 목적을 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주변 환경에서 자연물과 인공물이 조화를 이루는 예를 찾아보고, 시각 이미지를 수집하고 찾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41]

이러한 수업을 통해 과연 아이들이 미적 감수성과 능력 계발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오로지 시각만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수집하고 찾아보는 활동이 과연 제대로 된 체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수업 활동이라 할 수 있는지 말이다. 현 교육과정 체험 영역에서는 미적 체험 대상이 제한적이며, 시각 문화 환경에 중점을 두고 내용 구성이 이루어져있는 게 현실이다.

본 연구자는 시각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의 오감을 활용한 수업활동이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미적 체험영역으로써의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학년별로 수준에 맞는 체계화된 내용 구성이 이루어지며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자유롭고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기엔 부족한 미술 수업시수를 들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시수의 자율적인 편성이 이루어졌을 때, 실제로 교육현장에서의 미술교과는 주지교과에 배당될 시수로 인하여 20% 증감에서 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20% 증감의 수업편성권이 입시교육을 중시하는 현재 상황에서 미술교과에 20%가 증가하지 않을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실일지도 모르지만 최소한의 수업시수는 확보되어 교과가 목표한 수업운영과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9 개

41) 최연서, “체험영역에서의 미적 체험 교육에 관한 연구” .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p.4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전까지 1~10학년 학생들은 현재 예술 수업시수가 주당 1~2시간이고, 예술과목 선택비율이 20%미만 (고2 20%, 고3 3%)이며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 · 영 · 수 편중이 우려된다.[42] 과열된 입시경쟁 속에서 우선적인 국 · 영 · 수 수업시간은 늘게 되고, 상대적으로 예술 교과의 수업시간은 줄어들게 된다. 현재 중학교 미술 수업에는 집중이수제가 시행되어 학교 재량으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에 걸쳐 미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는 아이들의 작품 수준이나 완성도, 수업의 질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수업이 가능하지만 예술 교과의 수업시간이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아이들의 성장에 맞게 할 수 있는 경험의 기회를 단절시키므로 반드시 질적인 측면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수업시간의 시수는 교과의 중요도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학교교육에서부터 미술 교과의 특성과 가치가 인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지도방안과 교사가 바탕이 된다 하더라도 수업시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학습은 성취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의 바람직한 교육적 계발을 위해서 수업시수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중심의 사회로 전환되면서 교육이 경제적 발전의 필요성에 의해 발전되어 왔고, 그것은 단시간 안에 가시적인 효과는 낼 수 있지만 국가의 먼 미래를 생각하였을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지식을 요구하는 과목도 있고, 삶의 가치를 논하는 과목, 아름다움과 삶의 의미를 논하는 교과도 있다. 그 중 어느 교과가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는 기준을 내릴 수 없지만 아이들이 편중된 지적 교과만을 중심으로 학습한다면 정서 · 심리적인 발달 면에서 문제를 가져올 것이며 나아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미술은 자아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감성지능 계발을 통해 청소년기 자아 형성을 돕고 더불어 올바른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과로써 재인식 되어야 할 것이다.

---

42) 교육과학기술부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꿈꾸다: 교과부 · 문화부 '창의성과 인성함양을 위한 초 · 중등 예술 교육활성화 기본방안' 공동발표」, 교육과학기술부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학교 교육에서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능력 중 하나는 교사에게 방향이나 답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며 바라는 것이 아닌 스스로 해답을 찾고 발견하는 능력이다. 미술은 바로 이러한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교과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인정되어 교육에 대한 연구와 질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3. 오감활용 미술교육의 지도방향

1) 학습자의 특성

청소년기는 부모의 보호와 의존을 필요로 하는 미숙한 아동기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성인기로 성장해가는 과도기적 발달단계의 시기를 의미한다. 아동과 성인의 특성을 동시에 띄는 이중적 특성을 갖으면서 전반적으로 신체적 변화와 함께 생리적, 심리적, 인지적,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급격한 양적 · 질적 변화와 발달, 성장이 나타난다. 그리하여 자신이 누구인가 라는 자아 정체성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독자적인 자아를 형성하고 확립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해당 연령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똑같은 발달적 특성을 보인다고 무조건 단정 지을 수 없다.

(1) 인지적 발달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불릴 정도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불안, 갈등, 좌절, 두려움과 같은 격동적인 감정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인지적 기능은 아동기에도 발달하지만 청소년기에 와서 양적인 발달과 함께 질적인 변화를 보이게 되면서 새로운 지식을 탐색, 습득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식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아동기에는 직접 경험한 것이나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대상물에 대해서만 습득과 인지가 가능한 수준이었다면, 청소년기에는 형식적 조작 사고로의 발달에 따라 실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것을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가설을 설정하여 미래의 모든 가능성을 예측·검증할 수 있는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인지 발달의 변화를 통하여 청소년들은 독특한 사고와 행동특성을 보이게 되는데, 초기에는 타인의 사고를 인지할 수 없어 자신의 사고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거나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하는 자아중심적인 사고와 성향이 유지되기도 한다.

피아제(J. Piaget)[43]는 그의 인지발달이론과 관련하여 인지란 인간이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과 지식을 활용하는 정신적인 활동을 뜻하며, 환경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인지구조를 재구성해나간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은 성숙, 물리적 경험, 사회의 상호작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성숙이란 주어진 단계에서 인지발달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한계를 규정해주며 발달은 성숙과 경험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또한 물리적 경험은 감각적인 경험과 신체적인 활동이 정신적으로 조작하고 사고하는 과정을 통해 내재화되기 때문에 내재화 없이는 인지발달이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의자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의자가 푹신한지, 딱딱한지, 매끄러운지, 울퉁불퉁한지, 둥근지, 각이 졌는지, 높이가 높은지, 낮은지를 말이다. 피아제는 이러한 의자에 대한 물리적인 지식은 감각의 정신적 조작을 통한 내재화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고 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의자에 앉는 바른 자세나 의자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사회적 지식은 타인과의 아이디어 교환을 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피아제에 따르면, 아동은 이상의 세 가지 요인 중 어느 하나라도 결핍되었을 경

43) 피아제(J. Piaget)-현대 스위스의 심리학자, 아동심리학에 공헌이 크며 특히 아동의 인지발달단계에 관한 연구로 유명하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우 지적발달은 지연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는 성숙, 물리적 경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인지발달의 개념화를 감각운동기(출생 직후~2세), 전조작기(2~7세), 구체적 조작기(7~11세), 형식적 조작기(11~15세)로 네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44] 이 중 중학교 과정에 속하는 13세-15세의 청소년은 인지발달단계 중 마지막인 형식적 조작기 단계에 해당한다. 피아제의 이론에서 구체적 조작기의 아동들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이론적 사고를 하는 반면, 형식적 조작기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상황을 넘어서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추상적 사물들에 대해서 상징적인 추론이 가능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여 여러 상황을 일반화 할 수 있는 단계라고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추상적 사고란 융통성 있는 사고, 효율적인 사고, 문제해결에서의 조합적 추리, 가설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일, 문제 상황에서 해결 가능한 모든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는 일 등과 같은 것을 말한다.[45]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을 보았을 때, 구체적 조작기의 아동이라면 소를 잃어버리자 외양간을 고친다는 그 사실 그대로만을 받아들이는 반면 형식적 조작기의 아동은 비로소 이 속담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청소년은 추구하려는 이상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사회규범이나 관습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견해와 다르다 할지라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대로 행하려고 한다. 그러나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오는 부조화가 올 때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만 등이 나타나기 쉬우며 우울증, 좌절과 분노와 같은 심리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반항, 공격성, 더 나아가 일탈행위가 나타날 수도 있다.

44) 네이버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45) 박현의, "2009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미술교과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p.3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미적 표현 발달

미술 교육은 창작예술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교육적인 범위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아이들의 미술활동은 어른의 눈으로 기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바람직한 미술교육이란 자라나는 아이들 스스로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느끼도록 하여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미술활동에서 아이들은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매체와 소재를 활용하여 그리고 색칠하고 만들면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 느낌을 표현한다. 이를 통해 완성된 결과물보다는 미술에 한발자국 더 가까이 간다는 것에 의의를 두어 미술적 발달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미술에서 아이들은 관심과 흥미의 정도가 개인마다 다르지만 아동의 발달단계를 알고 미술활동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아이들의 미술활동을 관찰하고 지도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시해 준다. 바람직한 미술교육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학습자의 성장 변화에 따른 표현의 발달 단계와 표현유형, 그리고 인지 및 창의성과의 유기적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46] 학습자 개인마다 성장 속도, 환경, 소질, 의욕, 개성 등의 차이에 따라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적 발달 단계에 대하여 이미 여러 학자들과 미술교육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고, 연령별, 성별, 특징별, 유형별로 분류되어 여러 서적과 논문을 통해 많이 소개되어 왔다. 그 중에서 미술영역의 대표적 학자인 로웬펠드(ViktorLowenFeld)의 발달단계를 살펴보면, 그는 심리 분석적 개념구성을 근거로 두고 아이들의 미술작품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각 창의성 발달단계의 특징을 찾아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지식의 체계구조를 조직화 할 수 있었다.[47] 로웬펠드는 창의적 자기표현이 가능한 아동으로 발달시키는 수단은

46) 박현의, “2009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미술교과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p.4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미술이며, 자유로운 미술활동을 통해 올바르고 건강한 성장의 발달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로웬펠드는 아이들의 순차적인 창의성의 발달을 매우 중요시 여겨 아동이 태어나서 성장하기까지 일정한 단계들을 거쳐 발달하며 어떤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로웬펠드의 발달단계는 앞서 언급한 피아제(J.Piaget)의 인지발달이론을 기초로 한 자연 발생적인 상징체계의 발달이론이며 아동의 묘화능력 발달을 통해 그 단계를 연구한 결과이다. 그 내용은 아이의 작품 속에서 그 시기의 전체적인 성향이 반영되기 때문에 아동의 발달을 전체적인 것으로 보고 그 구조 안에서 인지적·정서적·신체적 발달과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창의성이 향상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로웬펠드에 의한 아동의 미술표현 발달 단계는 무의미한 선을 아무렇게나 되는대로 마구 그려 흔적을 남겨 심리학적 성장을 반영하는 난화기(2~4세)에서부터 전도식기(4~7세), 도식기(7~9세), 또래집단기(9~11세), 의사실기(11~13세),그리고 심리적으로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사춘기를 결정기(13~17세)로 구분하고 있다.[48] 이 중 중학교 3년, 만 13세~ 15세의 청소년기는 의사실기와 결정기 단계에 해당하며 '의사실기'와 '결정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먼저 의사실기 단계의 아이들은 자신의 개성을 작품에 반영하며, 자신의 작품에 대해 인식하여 대상의 표현할 때 원근법과 같은 입체적이고 세부적인 표현, 정교함이 증가하게 되며 자아의식이 싹터 협동작품에서 사회성을 발휘하기 시작한다.[49] 의사실기 단계는 실제와 똑같은 그림을 잘 그린 그림이라 생각하여 재현이 잘되지 않으면 그림과 점점 멀어져 그림을 전혀 그리지 않으려는 현상을 보인다. 발달단계에 있어 의사실기는 신체·정서·인지가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비판적 인식을 가지게 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주

47) 이기봉. "청소년기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감각활동을 적용한 미술수업 사례 분석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 p.60.
48) 임정기, 이성도.「미술교육의 이해와 방법」,예경, 2006.
49) 임영서.「유아미술활동」,정민사, 199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변에 대해 의식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비판적 인식의 발달은 미술활동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비판적 인식의 발달은 일반적으로 초기 단계에서 보였던 도식은 사라지고, 자신에 대한 자각으로 인해 충격을 받으며 작품에 대한 비판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이렇듯 이 시기의 아이들은 자신의 작품에 대하여, 그리고 성인들의 행동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비판적이게 되므로 교사는 비판적 인식을 갖고 있는 아이를 지속적으로 창의적 표현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어야 한다. 대개 이러한 현상은 비판적 인식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그에 따라 창의성이 상실되는 성인기 사이의 과정에서 비교적 많이 나타난다. 의사실기의 단계의 미술교육은 후에 아동이 미술에 대한 계속적으로 관심과 흥미를 갖고 스스로 참여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비판 인식이 점점 발달해 가는 시기로서 의미를 지녔다.

다음으로 결정기 단계의 아동들은 로웬펠드가 언급한 6가지의 발달단계 중 가장 마지막 단계로 지금까지 성장해 오던 창의적 활동에 위기감을 느끼는 시기이다. 결정기는 사춘기와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 대부분의 청소년기 아이들이 이 단계에 속한다. 청소년기는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 하나의 시기로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는 하나의 발달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말 그대로 소년의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연관되어 있다. 청소년기 아이들은 자아를 인식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시작하며, 아동기도 성인기도 아닌 과도기적 시기에서 혼란을 겪으며 미술활동에서도 변화과정을 겪게 되어 창의적인 미술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상을 겪는다. 청소년기 아이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실제 그들이 표현한 작품사이에서 오는 차이로 인해 충격을 받으며 작품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시작되며 미술 활동을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느낀다. 미술을 좋아하고 잘 그리는 아이들은 성인과 대등한 수준의 그림을 그려내지만 지속적으로 미술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지받지 못한 경우 창의적 표현이 상실되고 결국은 미술 활동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잃게 된다. 이때 교사는 아이가 자신의 개성을 발견하여 창의적인 표현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사고를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미술에 흥미를 잃었을 때에는 억지로 강요하기보다 명화나 전시회와 같이 아이에게 맞는 적절한 교육프로그램과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정서함양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학습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그들 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기는 인지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과 자기표현은 성인의 모방으로부터 시작한다. 청소년은 성인이 되기 위한 발달 과정에 있기에 성인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따라서 미술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성인들의 작품 세계를 통해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고, 사회문제를 인식하며 주변 환경을 창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변 환경에 대해 창의적으로 받아들이며 자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형성해가는 청소년들은 미술 표현 활동에 있어서도 감각적 유형이 뚜렷이 구분되기 시작한다.[50] 청소년기의 학생은 독립적인 자아가 형성되면서 자신만의 개성적인 미술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의 표현유형은 감각적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표현유형은 시각형(visualtype)과 촉각형(haptictype)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먼저 시각형인 사람은 시각적으로 본 자세한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대상을 넓은 시야 속에 넣고 객관적으로 보는 표현 유형으로 외관과 명암, 원근, 비례를 중시한다. 다음으로 촉각형인 사람은 개개의 대상과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집중하며 감정적 표현에 기우는 표현 유형으로 내면정서의 표현과 색채나 공간표현이 주관적이다.

모든 청소년은 시각형과 촉각형의 일직선상에 분포하지만 양극단으로 나누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교사가 아이들의 표현 유형을 나누는 것은 옳지 못한 지도 방법이다. 그러나 교사는 충분하게 학생의 감각유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각 유형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자신에게 맞는 경험과 또 그것을 표현을 할 수

50) 이정란, “오감을 활용한 미술 감성교육이 EQ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29.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있도록 하는 적절한 격려와 지지가 필요하며 창의적인 사고를 계발해야한다.

요컨대, 아이들이 겪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급격한 변화와 혼란으로 인해 창의적 활동을 멈추지 않도록 교사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미술은 사춘기로 접어든 아이들과 대화하기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과 보다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매체가 되어야 한다.

2) 지도의 방향

앞서 살펴본 현행 미술 교육과정 그리고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성지능 향상을 위한 오감활용 미술교육'의 지도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기에 정서교육은 필수 불가분한 것이다. 정서교육은 감성지능이 기초가 되어 이루어지며, 감성지능은 미술활동을 통해 계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절한 미술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감성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오감을 활용한 교육이다. 그러나 현행 미술 교육과정에서 미적 체험의 가능성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미술활동 또한 여전히 시각에 국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의 정서 · 인지발달을 위한 다양한 경험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질적인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오감각 체험을 중심으로 구성된 학습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미술에 흥미를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동기 유발이 된다. 자칫 미술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 있는 사춘기에 있어 최선의 동기부여는 직접 자신의 온 몸으로 오감을 통해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감각을 통해 쌓은 경험과 기억이 모여 정체성으로 혼란을 겪는 청소년기 아이들이 '지금, 여기'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며 이를 통한 올바른 자아형성과 계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셋째, 청소년기는 경험을 통해 대상을 인지하고 탐색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한 지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지는 시기이므로 주변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에 중점을 둔다. 오감을 활용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대상이나 사물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습득하며 보다 유연하게 사고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때문에 이에 알맞은 지도가 필요하다.

넷째, 다양한 재료의 활용하여 여러 감각을 익히고 창의적인 사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재료는 예술적인 여러 형상을 산출해 낼 수 있는 모든 물질을 말하며 이 세상 모든 물질들이 재료가 될 수 있다. 어떤 재료로 내면을 표현할까 또는 재료의 표현 가능성을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시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창의적이고 개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각각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 지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Ⅳ. 감성지능 향상을 위한 오감활용 미술 프로그램

1. 프로그램 구성의도

미술 교육의 목표는 인간의 정서와 창조적 능력을 길러 바람직한 인간상을 추구하는 데 있다.[51] 감성과 정서의 발달은 자기 이해와 더불어 타인을 이해하고 나아가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감성지능은 청소년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계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신의 감각기관을 통한 오감활용 미술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오감을 활용한 미술교육을 체계화한다면, 청소년기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돕고 이를 통해 학습효과 또한 극대화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 착안하여, 본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구성의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첫째, 본 미술교육 프로그램은 오감을 활용한 미술교육의 교육적 가치를 바탕으로 감성지능을 향상 · 계발시킬 수 있는 활동적 대안으로서 제시하였다. 미술 수업은 그리기, 만들기, 색칠하기 등의 기존 활동만 파악해보더라도 미적 감각과 더불어 인지발달, 정서발달, 신체발달과 연관성이 있으며 대인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지능 등 다양한 지능 활용에 대한 자아 계발의 가능성이 무한히 확대되는 교과목이기 때문이다.

둘째, 방법적 요소로서 오감을 활용한다. 청소년기의 발달 성향을 고려, 오감활용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의 제시로써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감각을 자유롭고 다양하게 활용하여 표현하게 하고, 미술에 대한 흥미와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또한 다양한 재료를 통해 여러 감각을 익혀 관찰하고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

51) 임현진, 중학교미술1교사용지도서, 교학사, 1999, P.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

셋째, 자연을 학습의 장으로 선정하였다. 살아있는 '나'와 '자연'이 만나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탐색하고 자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실내에서 이루어졌던 기존 수업의 장소적 한계성을 극복하고 교실을 벗어나 미술교육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험적인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한정된 재료와 주제, 획일화된 기법으로 이루어졌던 수업을 벗어나 자유롭게 체험하고 여러 가지 학문을 통합한 수업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넷째, 기존 미술교육 프로그램의 단점으로 언급되는 접근의 제한과 시간적 한계를 넘어서는 학습자 중심의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본 논문 Ⅲ장에서 살펴본 현행 교육과정에서의 오감활용 미술교육은 한정된 체험만을 강조하여 체험의 가능성이 축소되는 한계성으로 제한적 프로그램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을 극복하고 자연을 통한 오감활용 미술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비싼 교구나 인위적인 공간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양한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오감을 깨울 수 있는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2. 프로그램의 구성

본 연구자가 제시하는 프로그램은 과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자연'과 만나 자신과 주변 환경을 통한 상호작용과정을 통해 오감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체험할 수 있으며, 그것을 미술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감성지능을 계발하고 더 나아가 진정한 자아를 확립할 수 있다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된다. 자연에 대해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사실과 체험을 통해 직접 알게 된 사실의 비교를 통해 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상에 대해 보다 심도있고 다양한 방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법으로의 접근이 가능함을 터득하게 된다.

다음의 그림은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요약 설명하고 있다. 집중과 동기 유발을 꾀하는 도입부, 체험, 표현, 감상의 4부분으로 크게 구분된다.

[그림 1] 프로그램 진행과정 요약

3. 프로그램의 진행

1) 1단계 : 도입

1단계: 도입- 동기와 흥미유발 (자연에 대한 기억과 경험)
각자 자신이 자연을 통해 경험했던 기억의 느낌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프로그램의 도입 부분으로 아이들이 자연을 통해 경험했던 기억과 그 때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느낌 또는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게 함으로써 흥미와 동기를 부여한다. 교사는 다양한 자연의 자료들을 보여주어 자연체험에 앞서 앞으로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안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교사는 오로지 시각만으로의 관찰이 되기 쉬운 아이들에게 오감각을 통해 주의 깊게 관찰해 줄 것을 요구하며 자연의 소리와 냄새, 피부 등 자신의 온몸으로 전해지는 느낌 등 보이는 것 이외에도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을 인지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이는 후에 표현 단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정보를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 준다.

2) 2단계 : 전개

2단계: 전개 - 자연체험
실제 주변의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가까운 곳 (공원, 숲, 산 등)으로 가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오감을 활용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자연을 탐색하고 관찰한다. 간단한 간식과 음료를 준비하고 지켜야 할 주의점을 미리 전달하여 숙지시킨다. 또한 아이들의 자유로운 관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유롭게 진행시켜야 하며 체험하는 중간에 교사의 설명이 곁들여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직접 사진을 찍거나 소리를 녹음하는 것도 가능하다.

2단계는 교사를 통해 다양한 자료로 미리 살펴본 자연의 이미지와 자신이 직접 찾은 자연의 모습을 비교하고 느껴보는 시간을 갖는다. 교사는 아이들이 자연과 만나 다양한 소리와 냄새, 느낌 등을 직접 확인하고 관찰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많은 설명 없이도 스스로 흥미를 느끼는 관찰이 될 것이고 풍부한 감성 또한 키울 수 있다. 이러한 오감활용 체험을 통해 인지·정서발달, 신체발달 그리고 사회적 지능 등 여러 지능 활용을 도울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2] 약수터 오감체험 과정 예시

3) 3단계 : 표현 1

3단계: 표현1 - 언어표현 (오감 생각그물 만들기)
자연체험을 마치고 돌아온 아이들은 자신이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느꼈는지 4·5명이 모둠을 이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자연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오감 생각그물을 이용하여 1차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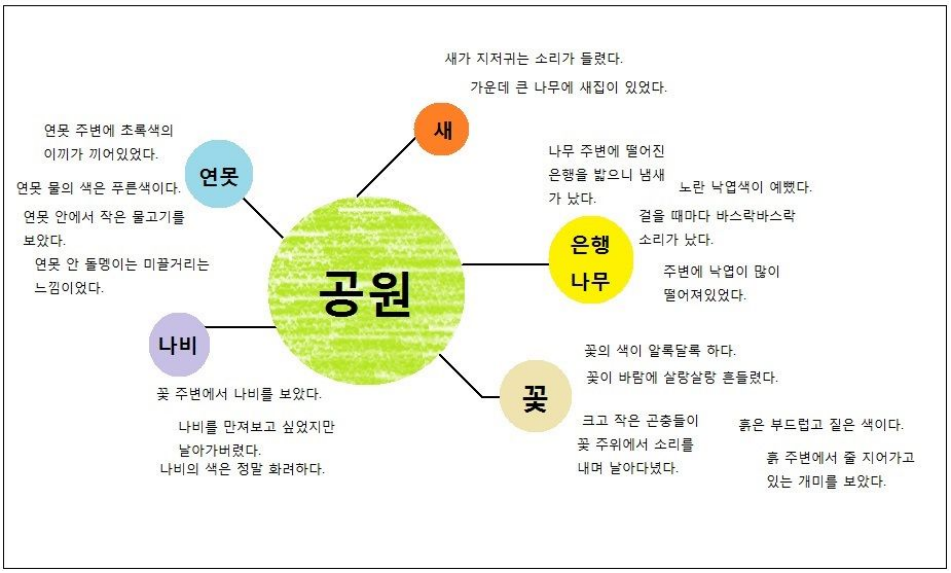
3단계는 1차적으로 언어를 사용하여 자연을 표현해 보는 단계이다. 자연에 대한 기억을 생각그물 방법을 통해 몇 마디 정보나 단어, 문장 등으로 회상하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정리해 봄으로써 경험을 구체화하고 표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듯 생각그물을 활용하면 하나하나의 요소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연결 지어 볼 수 있고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끼리의 연관성도 찾을 수 있다. 완벽하게 정리된 내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감을 통해 경험한 것을 기억의 흐름을 따라 정리한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자유로운 표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표현이 막혀 어려워한다면 '그때의 냄새는 어땠을까',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 등 감각적인 접근을 유도하는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것은 도와주는 역할이지 아이들의 자유로운 발상을 방해하거나 교사의 생각을 강요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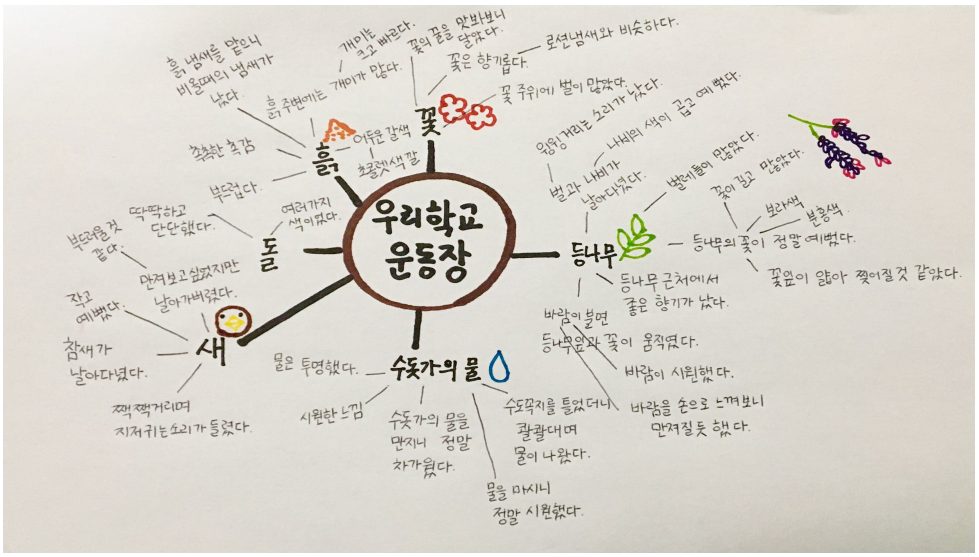
자연에 대한 오감 생각그물과 함께 구체적인 사물, 혹은 구역을 나눠 보다 세밀한 기억을 정리해 보는 것도 좋다. 은행나무, 꽃, 연못 등 대상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감각적 표현 또한 상세해진다.



[그림 3] 오감 생각그물 만들기 예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4] 운동장 오감 생각그물 예시

[그림 3]과 [그림 4]는 자연에 대한 경험과 기억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정리한 오감 생각그물의 예시이다. 뒤죽박죽 엉켜있는 기억들을 꼭 글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으며 가지를 뻗듯이 기록하면서 정리함과 동시에 기억도 시각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4) 4단계 : 표현 2

4단계: 표현2 - 조형 표현 (우리의 숲 만들기)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정리한 자연에 대한 기억을 조형 활동을 통하여 표현해 보는 단계이다. 모둠별 오감 생각그물을 바탕으로 어떤 것을 무엇을 주제로 선택하고 표현할 지 토의한 후 구체적인 표현으로 들어간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대상물을 선택하고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교사가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단계는 자연에 대한 기억을 언어적으로 정리하는 표현 1단계를 거쳐 대상물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조형표현 단계이다. 아이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자연을 표현할 것인지 생각하게 하고 감각적 접근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미각적, 촉각적 표현의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교사의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아이들 스스로 경험했던 때를 회상하며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한다. 여기에서 아이들이 그리기, 만들기, 채색 등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여러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재료에 있어서도 연필, 색연필, 물감, 색종이, 사진, 찰흙, 털실, 낙엽, 나뭇가지 등 주변의 소품을 활용하고 기존에 사용하는 표현 방법 이외에도 다양하고 새로운 방법을 동원하여 개성 있는 표현을 하게끔 지도한다.

*** 표현하기의 예) 은행나무**

교사는 도화지를 붙여놓은 벽에 아이들이 원하는 바를 다양하게 표현하도록 돕는다. 재료는 물감이나 색연필로 직접 그려 넣을 수도 있고 색종이나 종이로 붙일 수도 있으며 나뭇잎에 물감을 묻혀 찍기, 손바닥을 이용한 찍기, 나뭇가지나 털실과 같은 재료를 붙이기 등 모든 방법이 가능하다. 교사는 아이들이 표현하고 싶어 하는 모든 소재들과 시도가 가능함을 알려주며 특히 바깥의 자연물을 가져와 미술활동에 활용한다면 근사한 오브제가 될 수 있다. 아이들은 오감각으로 사물을 기억하고 표현하고 모둠활동을 통한 협동 작업으로 다방면의 종합적인 지능 발달이 가능해지며 무엇보다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주제와 표현방법을 결정하고 표현하는 데 주체성과 성취감을 기르게 하여 자아계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5) 5단계 : 감상

5단계: 감상 - 우리의 숲
모둠별로 표현되어진 숲의 부분들을 한 곳으로 모아 아이들이 만든 숲으로 꾸며본다.

5단계는 모둠활동을 통해 표현되어진 숲의 부분들을 각 모둠별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아이들 스스로 무엇을 만들고 표현한 것인지 나름대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각 모둠별로 준비한 숲의 부분들을 한 곳으로 모아 '우리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꾸며보고 더 더할 것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본다. 숲에 관련된 음악이나 음향 효과를 더해도 좋고 새나 곤충들의 모습을 그려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물을 대상으로 색의 대비, 표현에서의 균형, 비례 등에 대해 자연스럽게 학습이 가능하며 미술교육의 주요한 특징의 하나인 다른 과목과의 통합 활동이 용이하여 자연 관찰 학습, 신체적 기능, 사회성 훈련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 연계할 수 있다.

4. 기대 효과

본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1)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오감을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평상시 잘 활용하지 못했던 오감각에 대한 집중력을 높일 수 있으며 대상에 대한 관찰 및 표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아이들의 감성지능에 대한 향상과 계발을 이룰 수 있다.

모둠활동을 통한 협동작업과 발표를 통해 아이들은 자신 및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관계 형성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포함한 사회성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연을 관찰하고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다방면의 종합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며 이는 불완전한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3) 프로그램을 참여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주체성을 갖게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최소한의 방향을 제시하는 조력자로써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표현하게 하여 주체성과 자신감을 심어주게 된다.

4) 자연을 체험하는 수업형태로 미술수업이 반드시 교실이나 인위적 공간만이 아닌 가까운 주변에서도 가능함을 일깨워줄 수 있다.

5) 본 프로그램과 기타 다른 교과목과도 통합수업이 용이하다. 자연 속의 나무나 풀과 꽃, 곤충과 같은 생물에 대한 관찰·탐구로 과학 교과와의 통합, 혹은 자연을 주제로 한 글짓기나 음악을 찾아보는 등 국어나 음악교과로의 통합이 쉽게 이뤄질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2> ‘우리의 숲’ 만들기 수업지도안

학습 주제	‘우리의 숲’ 만들기			
학습 목표	· 자신의 오감을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자연체험을 통해 느낀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지도 단계	학습내용	교 수 / 학습활동		수업 자료 및 지도상 유의점
		교 사	학 생	
도입	상호인사 및 출석확인	· 상호인사 - 상호인사로 미술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 출결확인 - 출결을 확인하여 결석생이 없는지 점검한다.	· 선생님과 인사한다. · 교사의 출석확인에 응한다.	
	학습 환경 조성	· 학습 환경 조성 - 자세를 바르게 하고 적극적인 수업 태도를 갖추도록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 준비물 체크 - 학습에 필요한 준비물을 체크한다.	· 교사의 말에 따라 자세를 바르게 하고 수업 태도를 갖춘다.	
	주제설명	· 주제 제시와 설명 - ‘우리의 숲’ 만들기	· 교사의 설명에 집중한다.	
	동기유발	· 발문을 통한 동기유발 - 자연을 통해 경험했던 기억의 느낌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사의 설명에 집중하며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지도 단계	학습내용	교수 - 학습활동		수업 자료 및 지도상 유의점
		교 사	학 생	
도입	동기유발	· 자연과 관련한 자료제시 - 본시 학습을 위한 동기유발과 학습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 자연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학습을 안내한다.	· 교사와 설명과 자료를 참고하여 학습의 흐름을 이해한다.	· ppt자료
전개	학습내용 안내	· 본시 학습내용 설명과 체험 시 주의사항 안내	· 교사의 말에 집중하고 주의 사항을 숙지한다.	
	자연체험	· 실제 주변의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가까운 곳(공원, 숲, 산 등)에서의 자연 탐색 및 관찰 - 오감(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자유로운 관찰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오감을 활용하여 자연을 체험하도록 한다.	· 카메라. 녹음기 · 간단한 간식과 음료
표현	언어표현	· 오감생각그물 만들기 (4~5인 조별학습) - 자연에 대한 경험이나 기억을 오감생각그물을 활용, 언어를 사용하여 정리해보도록 한다. - 교사는 감각적인 접근을 유도하는 질문을 통해 자유로운 표현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 모둠별로 토의한 내용을 오감 생각그물을 통해 표현한다.	· 질문 시, 아이들의 발상을 방해하거나 교사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도록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지도 단계	학습내용	교수 - 학습활동		수업 자료 및 지도상 유의점
		교 사	학 생	
표현	조형표현	·'우리의 숲' 만들기 (4~5인 협동작업) - '오감 생각그물'을 바탕으로 표현할 주제를 조별로 선정하게 한 후, 구체적인 표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다양한 재료와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여 개성 있는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오감생각그물'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대상물과 표현방법을 선택하여 표현한다.	·교사는 아이들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재료(연필, 색연필, 물감, 색종이, 사진, 찰흙, 털실, 낙엽, 나뭇가지 등 주변 소품) ·도화지(전지)
감상	작품 감상 및 발표	·모둠별 발표 - 모둠별 협동작업을 통해 표현 되어진 숲의 부분들을 각 모둠별로 소개하고 발표한다. - 각 모둠별 숲의 부분을 모아 '우리의 숲' 이라는 이름으로 꾸며보고 더할 것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도록 한다.	·조별로 작품을 발표해보고 더할 것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본다.	·음향효과가 필요할 시, 스피커 사용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5. 수업지도안

감성을 활용한 미술교육은 학생들에게 각 감각을 의미 있게 활용해서 정서적 안정과 창의성, 조형능력을 향상시키고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감성지능 향상 미술교육을 통해 감수성과 정서에 효과적인 미술교육을 적용시켜 감성지능을 발달시키고자 한다.

감성지능을 발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감수성이 예민하고 변화가 큰 중등 청소년기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미술교육을 통해 감성지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미 많은 선행 논문들이 미술교육이 감성지능 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왔지만 이러한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결론에도 불구하고 감성지능 발달을 위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은 단기적이거나 일회성 수업으로 끝나버렸다. 이에 본 연구자는 프로그램 방안 연구와 함께 실제 학교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업지도안을 작성하였다.

수업의 주제로는 생활 주변에서 미적 대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연의 소재로 자연을 관찰하는 관찰력, 상상력의 자극, 미적 감각, 나아가서는 청소년기의 바람직하고 올바른 인성함양에 효과를 기대하였으며 주제에 대한 학습목표를 정확히 파악하며 표현과정에 있어 관심을 갖고 탐색하도록 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3> 오감을 활용한 미술 수업지도안 1

▶ 요즘의 나

학습 주제	요즘의 나	
학습 목표	· 자신의 오감을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을 자연물을 소재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지도 단계	교 수 / 학습활동	자료 및 지도상 유의점
도입	· 요즘 자신의 감정상태나 기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전개	· 주변에 가까운 자연 체험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을 표현할 수 있는 자연물을 선택하여 얼굴표정으로 표현한다. - 효과적인 표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다. - 자신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이성원의 자연미술, http://blog.naver.com/celline70) · 표현 후, 자신의 작품 촬영	·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준다. · 각자 자신만의 개성있는 표현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에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지도 단계	교 수 / 학습활동	자료 및 지도상 유의점
감상 및 평가	· 자연물을 통해 표현한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며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눠본다. · 자신의 모습을 한번 더 느껴보고 인식한다.	· 발표 시, 자신의 이야기와 작품 의도를 말할 수 있도록 하며 발표하는 사람의 말에 경청할 수 있게 한다.
정리	· 주변을 정리하고 차시 예고를 한다. · 준비물을 숙지시킨 후 수업을 마무리한다.	· 주위 정돈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 오감을 활용한 미술 수업지도안 2

▶ 오감을 통한 알아맞추기

학습 주제	오감을 통한 알아맞추기	
학습 목표	· 자신의 오감각을 통해 사물을 느껴보고 알아맞출 수 있다. · 감각을 통해 느낀 사물을 주제로 삼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지도 단계	교 수 / 학습활동	자료 및 지도상 유의점
도입	· 오늘 학습과 관련한 영상자료 제시 - 본시 학습을 위한 동기유발과 학습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 관련된 TV 프로그램 영상자료(예능프로그램 '런닝맨' 중 촉감체험)을 짧게 시청한다.	· 영상 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고 학습을 안내한다.
전개	· 상자 속 사물 감각체험 - 사물이 들어있는 암막상자를 4개 준비한다. (이 때, 두가지 이상의 감각을 체험할 수 있는 사물로 준비하도록 하며 체험 가능한 감각을 상자 앞에 명시해 놓도록 한다.) * 예시- 된장 (후각, 촉각, 미각) 허브, 꽃 (촉각, 후각) - 각자 조별로 나와 사물을 느껴본다. · 체험한 사물을 주제로 한 그림 표현 - 체험 후 자리로 돌아가 조별로 체험한 느낌과 사물을 연상해보고 의논하는 시간을 갖는다. - 토의를 마쳤다면 조별로 체험한 사물을 주제로 하여 자유롭게 그림으로 표현해보도록 한다.	· 체험 시, 아이들이 오직 감각만을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 각자 자신만의 개성있는 표현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에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감상 및 평가	· 조별 발표 - 조별로 나와 체험 느낌과 표현한 작품을 발표한 후 사물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 발표 시, 자신의 이야기와 작품 의도를 말할 수 있도록 하며 발표하는 사람의 말에 경청할 수 있게 한다.
정리	· 주변을 정리하고 차시 예고를 한다. · 준비물을 숙지시킨 후 수업을 마무리한다.	· 주위 정돈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5> 오감을 활용한 미술 수업지도안 3

▶ 나만의 나무

학습 주제	나만의 나무	
학습 목표	· 살아있는 나무의 형태를 관찰하고 미적 경험을 통해 다양한 곡선과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 몸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나무를 직접 체험하여 신체 오감각의 발달을 키울 수 있다.	
지도 단계	교 수 / 학습활동	자료 및 지도상 유의점
도입	· 동기 유발 및 학습목표 제시 - 본시 학습목표를 제시하며 본 학습은 자연공간에서 수업이 이루어진다.	
전개	· 자연체험 - 자연이 주는 공기를 호흡하고 다양하게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한다. - 나무들이 이루고 있는 곡선과 형태들을 면밀히 관찰하도록 유도한다. -오감을 이용하여 느끼고 익혀진 형태에 세심함을 더할 수 있도록 집중하여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 체험을 통한 나무 표현 - 관찰해 본 나무의 형태를 준비된 도화지 위에 미리 준비한 연필로 마음껏 표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 나무의 형태와 묘사에 대한 스케치는 내면의 감정에 의해서 표현 가능하도록 한다. - 먼저 눈으로 인지하고 판단한 나무의 색감을 충분히 드러내도록 하며 나만의 색을 만들어 또 다른 나무색을 표현해 본다.	· 아이들이 스스로 다양한 색채표현의 방법을 판단하고 결정내릴 수 있도록 한다. · 색채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색들의 조합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색감들에대한 충분한 경험을 하도록 돕는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감상 및 평가	· 개인별 발표 - 직접 보고 듣고 만지며 느껴본 나무들을 표현한 작품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한다. - 자연에 대한 느낌과 작품의 표현력이 아이들이 유도한대로 상호 연관성있게 완성되었는지에 관하여 조언을 해준다.	· 발표 시, 자신의 이야기와 작품 의도를 말할 수 있도록 하며 발표하는 사람의 말에 경청할 수 있게 한다.
정리	· 주변을 정리하고 차시 예고를 한다. · 준비물을 숙지시킨 후 수업을 마무리한다.	· 주위 정돈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V. 결 론

우리나라는 무분별한 주입식 교육, 대학 입시에 대한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야기 시켰으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출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정서발달을 위해서는 자기 이해와 더불어 타인과 소통하며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의 IT기기들을 통한 무분별한 정보에 노출, 중독되어 일탈과 비행과 같은 잘못된 욕구표출로 이어지거나 정서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때문에 청소년기에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만큼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 표출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접근을 통한 돌파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적 접근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고 주입하는 전통적 교육보다는 감성지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미술교육은 단순히 기술 또는 작품 제작으로써의 지식 전달이 아니라 다양한 미적 경험을 통해 감성지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본 연구자는 감성지능 향상을 위한 미술교육으로써 오감활용의 중요성과 교육적 의의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그에 맞는 미술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첫째, 청소년기의 감성지능 향상을 위한 미술교육을 위한 감성지능의 개념과 미술교육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미술은 감정, 정서와 직결되는 교과이며 아이들은 미술을 통해 자신 및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어 감성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양한 미술활동은 아이들이 지닌 감성을 풍부하게 하고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며 감성과 지적 능력을 균형 있게 발달시킴으로써 아이들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는데 가치가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둘째, 감성지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미술활동을 통한 오감활용의 주요능력과 교육적 의의를 알아보았다. 자신의 오감각을 통해 느끼고 경험하는 미술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은 주변 환경과의 지속적인 감각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사물의 특성을 탐색하고 파악할 수 있는 감각적 사고와 감성적 사고가 증대되고 따라서 청소년기 자아 정체성의 형성과 계발을 도울 수 있다. 이러한 정서적 교육의 내용으로 감성지능과 오감 두 영역을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상호 보완적으로 지도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행 교육과정을 통한 오감활용 미술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지도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미적 체험영역은 시각에만 국한되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미술교육의 내용은 감성을 활용한 정서적인 교육이 단지 부수적인 교육의 수단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술 교과과정에서의 오감각과 감성적 미술교육 과정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아이들은 그 가치를 이해하고 삶에 있어 정서함양에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통해 감성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오감활용을 접목한 미술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기대효과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자가 제시하는 프로그램은 오감활용의 교육적 가치를 바탕으로 주변의 '자연'을 체험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감성지능을 향상 · 계발할 수 있는 활동적 대안이다. 또한 청소년기 발달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미술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 아이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매체가 되어줄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갈 때에는 주입식 교육을 통해 머리로만 아는 지식보다는 자신 및 타인과의 정서를 교류하는 사회적 · 감정적 능력이 계발되어 있지 않다면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다. 주체성을 갖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인식하여 표현할 수 있고,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인간으로의 육성이 필요하다. 때문에 감성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육을 통해 올바른 인성을 형성하여 심리적 성장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미술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미술교육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 역할의 의미가 크다고 사료되며 시대의 변화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여 학교 교육의 방향이 유동적으로 변화해야 할 때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고문헌

단행본

김선현. 「감성 발달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아담북스. 2011.

김춘일 · 김성구. 「유아를 위한 미술교육」. 미진사. 1998.

김현경 외. 「감성교육의 이론과 실제」. 다음세대. 1998.

다니엘 골드만.「감성지능」. 비전코리아. 1995.

문용린. 「EQ가 높으면 성공이 보인다」. 글이랑. 1998.

유신모. 「SQ는 성공의 어머니」. 경향신문. 2006.09.04.

임영서. 「유아미술활동」. 정민사. 1998.

존 가트맨 · 최성애 · 조벽. 「내 아이를 위한 감정코치」. 한국경제신문. 2011.

학위논문

권미혜. “오감을 활용한 미술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김성숙. “발도로프학교의 미술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대학교 미술교육학 회 제 11집 1호. 2002.

김선애. “몬테소리 감각교육이 유아의 지각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김희승. “중등교육에서 감성지능 발달을 위한 미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노은진. “오감 활용을 통한 미술과 교수 · 학습 활동의 효과 연구”. 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류승연. “감성교육을 위한 중등미술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문선우. “미술 교육에 있어서의 감성지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박서정. “2009 개정 중학교 미술교육 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박아림. “감성지능 향상을 위한 미술 교육 지도방안 연구: 초등학교 중학교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박현의. “2009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미술교과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박현희. “미술교육에서 감각 체험 활동을 통한 드로잉 지도 방안 연구 : 초등학교 4학년을 중심으로”, 한국 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이채원. “옻칠매체를 활용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연구: 몬테소리의 오감발달 이론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15.

안은미. “감성과 감각교육을 적용한 미술교육”.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이기봉. “청소년기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감각활동을 적용한 미술수업 사례 분석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

이영아. “오감에 의한 미적경험을 통한 표현 활동 지도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이정란. “오감을 활용한 미술 감성교육이 EQ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임부연. “유아기 심미감 발달과 연계한 물감수업의 탐구”. 미술교육논총 제19회.

전성수. “감성지능 계발을 위한 미술 교육방안” .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1999.

최연서. “체험영역에서의 미적 체험 교육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Collection @ chosun